

대학입학전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백 순 근*

I. 들어가는 말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를 비롯한 교육분야에서도 다양화·전문화·특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1998)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 안(案)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우리 나라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의 지향이다. 즉,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와 그에 따른 학생 선발 방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 나라 상황에서 대학입학전형은 학생 개인으로서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며, 대학으로서의 대학의 위상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고등교육을 통해 길러낼 인재를 선별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대학입학전형은 일차적으로 대학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고등학교의 문제요,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입학전형의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전형자료 등이 어떠한지 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에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현행 대학입학전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대학입학전형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다음, 대학입학 전형자료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①대학수학능력시험, ②내신성적, 그리고 ③대학별 전형자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입학전형 방법 및 절차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①수시 모집과 ②모집 단위 광역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학입학전형이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 대학의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입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학전형 제도가 마련되거나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I. 현행 대학입학전형의 일반적인 특성

최근의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나름대로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입학전형의 특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02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현행 대학입학전형의 일반적인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차 모집의 폐지이다. 즉,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던 특차 모집을 폐지하였다. 이는 시험 성적 위주의 우수학생 유치경쟁으로 인한 입시과열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모집 시기가 다양화되었다. 이는 모집 시기를 분산시켜 응시자들의 실질적인 복수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모집 시기별로는 수시 1학기(5. 20 ~ 6. 20), 수시 2학기(9. 1 ~ 12. 6) 그리고 정시 모집(2001. 12. 14 ~ 2002. 2. 2)으로 구분하여 시행된다(<표 1> 참조). 참고로 서울대학의 경우 수시 2학기에 모집 정원의 30%(1,170명)를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서 나머지 70%(2,730명)를 선발하며, 농어촌 학생·특수교육대상자·재외국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모두 190명 이내를 선발할 계획이다(서울대학교, 2001).

<표 1> 4년제 대학의 모집 시기별 대학 수 및 모집 인원

모집 시기	합 계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모집
대학수	192	66	171	192
모집 인원	373,884	10,472	97,349	266,063
구성비(%)	100	2.8	26	71.2

< 자료: 대학교육협의회(2001) >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에 9등급 점수(stanine scores)가 도입되었다(<표 2> 참조). 이는 소수점까지 표시되던 영역별 점수나 혹은 총점을 활용하는 것보다 등급을 활용하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지원자격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표 2〉 9등급 점수(stanine scores)의 구성비(%)

등급점수	1	2	3	4	5	6	7	8	9
구성비(%)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	4	11	23	40	60	77	89	96	100

넷째, 대학별 전형자료가 다양화되었다. 거의 모든 대학이 활용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내신성적 이외에, 대학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형자료들을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예컨대, 논술고사·실기고사·면접 및 구술고사 등을 실시하기도 하고, 입학지원서나 혹은 별첨자료를 통해 필요한 자료(예: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상장이나 자격증 사본 등)를 요구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국·영·수 위주의 지필식 본고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각 대학은 국·영·수 위주의 지필식 본고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전형자료들을 나름대로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도록 전형자료를 다양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모집 단위가 광역화되고 있다. 대학의 학과별 혹은 전공별 모집에서 단과대학별 혹은 계열별 모집으로 모집단위가 광역화되고 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사과정에서 폭넓은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위주의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전제하에 2001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80개였던 모집 단위를 2002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20개 모집 단위로 광역화할 계획이다(서울대학교, 2001).

여섯째, 대학입학전형이 연중 업무가 되고 있다. 모집 시기가 다양화되고 전형자료가 다양화된과 동시에 대학별 전형이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됨에 따라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일년 내내 대학별 입학전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진로지도를 하거나 지원서나 추천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각 대학도 나름대로의 전형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전형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혹은 채점)하기 위한 작업들이 연중 업무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전형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전형자료는 크게 ①대학수학능력시험, ②내신성적, ③대학별 전형자료의 세 가지 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전국적인 자료이며, 내신성적은 고등학교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이고, 대

학별 전형자료는 개별 대학이 지원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혹은 면접 및 구술고사나 논술고사 등을 통해 나름대로 수집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형자료들이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1.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근 대학입학 전형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1994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면서도 공통적인 학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 제2외국어(선택) 영역별로 통합 교과적인 소재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을 획일화·표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고등학교로 하여금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시험 준비에 몰두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현행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용 면에서 단일 유형의 시험이며, 난이도 면에서 단일 수준의 시험이고, 수험부담 면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 대비해야 하는 시험이며, 문항형태 면에서는 선택형 시험이고, 응시기회 면에서는 1년에 1회의 기회만을 제공하고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시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전국 공통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이 서로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 나라 상황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전문화·특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학입학 전형자료 중의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양화·전문화·특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력고사(achievement test)와 학업적성검사(scholastic aptitude test)를 통합한 시험형태¹⁾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에서 직접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교과목에 대한 학력고사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대학 교육에 적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학업적성검사라고 하기도 어려운 애매모호한 시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교과목별 학력고사로 하거나

1) 학력(achievement)이 현재의 성취수준을 의미한다면, 학업적성(scholastic aptitude)이란 앞으로 성취할 것이라 예상되는 기대수준을 의미한다.

아니면 학업적성검사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교과목별 학력고사(대학입시센터시험)만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학업적성검사(SAT I)와 교과목별 학력고사(SAT II)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둘째, 시험의 유형이나 수준을 다양화하고, 개별 수험생이 준비해야 하는 시험의 내용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수험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의 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험생의 특성에 따라 교과 안에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혹은 수험생의 수준에 따라 같은 과목 시험이지만 난이도가 다른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학업적성시험에 해당하는 비교적 쉬운 SAT I, 교과목별 학력고사에 해당하는 중간정도의 SAT II,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매우 어려운 학력고사라 할 수 있는 AP(advanced placement) 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백순근 외, 1999). 또한 시험의 내용을 ‘기초공통 시험’과 ‘교과목선택 시험’으로 이분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가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 2학년부턴은 교과목 선택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국의 GCSE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같이 수험생들의 고등 사고기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선택형 일변도가 아니라 서술형이나 논술형 등 수행평가 문항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응시기회를 가능한 여러 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1년에 1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에서 거의 동일한 일정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입학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을 1년에 1회 시행하는 것은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단 한번의 시험으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미국의 SAT처럼 1년에 6~7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1년에 2~3회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최소한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와 같이 ‘추가시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험의 실시 방식을 지필식 시험에서 미국의 TOEFL이나 GRE시험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으로 발전시켜 수험생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내신성적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추천배정이 시작되고 1974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학입시 경쟁이 과열

되고 입시준비를 위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대학입학 전형방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1년부터 대학입학전형에서 소위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내신성적의 활용에 있어서도, 지역간·학교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차이를 무시하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그후 아직까지 정부는 학교간 학력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백순근, 2001a).

1981년부터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대학 입학전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성적부풀리기'²⁾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는 시험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평균점수에 의해 산출되는 수·우·미·양·가³⁾의 활용만으로 학생들의 실력차이를 변별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동시에 학교간 학력 차이가 극심해서 각 학교에서 산출한 전교 석차를 활용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⁴⁾.

참고로, 김성인(2001)에 따르면, 전국의 1,847개의 고등학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을 분석한 결과 재학생 전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전국 상위 10%이내에 들고 있는 고등학교가 3개교나 있고, 재학생 중 한 명도 들지 못하는 고등학교가 823개교가 될 정도로 학교차이가 심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내신성적의 부풀리기와 관련하여 비슷한 수준의 고등학교들끼리 '수'를 주는 비율이 40%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저 수준을 보이는 학교가 최고 수준을 보이는 학교보다 '수'를 주는 비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밝혔다(<표 3> 참조). 아울러 몇 년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1998년도에 전국의 일반계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400점 만점) 모의 고사에서 학교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의

-
- 2) '성적부풀리기' 현상이란 단위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내고, 참고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가르쳐 주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성적부풀리기 현상을 막기 위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나 해당 교사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경위서를 쓰게 하고, 주의, 경고의 징계 조치를 취하긴 하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 3)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하면, 시험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특정 교과목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70점 이상이면 '미', 60점 이상이면 '양', 그리고 60점 미만이면 '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교육부, 1999).
 - 4) 많은 대학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일부 비평준화 우수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성적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 내신성적의 실질반영률(기본점수를 빼고 수험생간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점수차)을 대체로 10%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200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고교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고려대 4.1%, 포항공대 5%, 서강대 5%, 서울대 8.43%, 이화여대 7%, 연세대 9.9% 등에 불과하였다.

점수차이가 255점(최고 364.3점, 최저 108.9점) 정도 된다는 것은 학교차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조선일보, 98. 9. 3).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199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교사 자료는 학교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학교평균이 307점(최고 373점, 최저 66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나병현, 1997).

<표 3>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에 대한 분석

수능상위 10%에 속하는 재학생 비율(%)	고등학교수 (총 1,847)	내신성적 '수' 부여 비율(%)		
		최대 비율	최소 비율	차이
90-100	15	88.3	35.4	52.9
80-90	9	79.8	29.0	50.7
70-80	6	38.2	26.5	11.8
60-70	4	68.0	33.4	34.6
50-60	9	36.0	23.2	12.8
40-50	9	38.4	21.5	16.9
30-40	13	43.0	13.7	29.3
20-30	42	54.1	10.9	43.2
15-20	107	35.6	9.7	25.9
10-15	216	36.3	6.9	29.3
8-10	88	32.4	9.6	22.8
6-8	103	31.6	6.3	25.3
4-6	82	37.6	8.1	30.0
2-4	100	31.8	7.0	24.9
0-2	1,044	64.3	2.9	61.4

< 자료: 김성인(2001), p.53 >

이와 같은 내신성적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간 학력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학교간 학력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내신성적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

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학교간 학력차이를 인정하고자 할 경우, 향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와 고교 평준화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백순근, 1999).

<표 4> 국가 교육과정과 평준화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교차 파악을 위한 평가 방안

유형	국가 교육과정	평준화 정책	학교차 파악을 위한 평가 방안
I	유지	고수	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② 국가 공통 절대평가 실시
II	유지	수정·보완	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② 국가 공통 절대평가 실시 ③ 고교 등급제 실시 ④ 비교대신제 실시
III	수정·보완	고수	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② 국가 공통 절대평가 실시 ③ 권역별(같은 종류의 교육과정 사용)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④ 권역별 공통적인 절대평가 실시
IV	수정·보완	수정·보완	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② 국가 공통 절대평가 실시 ③ 고교 등급제 실시 ④ 비교대신제 실시 ⑤ 권역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⑥ 권역별 공통적인 절대평가 실시 ⑦ 권역별 고교 등급제 실시 ⑧ 권역별 비교대신제 실시 ⑨ 대학별 고교 등급제 실시

< 자료: 백순근(1999), p.104 >

한편, 학교간 학력차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단위 학교 안에서 상대평가에 의한 각 교과목별 석차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학교간 학력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단위 학교 내에서의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간 학력차이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단위 학교 내에서의 석차는 거의 무의미할 뿐이며, 오히려 학생들간의 지나친 경쟁만 조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활동을 다양화·전문화·특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단위 학교 내 교과목별 석차제

도를 폐지함으로써, 교과별 한 줄 세우기로 인한 동료 학생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교과목별 석차를 기록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과제학습, 협력학습, 집단학습 등 교수·학습 활동을 다양화·전문화·특성화하고, 서술형, 논술형, 실기시험, 토론법, 관찰법 등 평가 방법을 다양화·전문화·특성화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절대평가에 의한 수/우/미/양/가 평어 평가나 서술식 평가(예: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이 주지교과가 아닐 경우에는 평어 평가마저도 지양하고, 해당 교과에 대해서 개별 학생의 강점이나 약점을 서술하도록 하는 평가)만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선진 외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 교과목별 석차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3. 대학별 전형자료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쉽게 출제되고, 고등학교간 학력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대학별 전형자료(예: 대학별 논술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교육부(1998)가 새로운 대학입학제도를 제안하면서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에 적합한 형태로 대학입학전형을 다양화·전문화·특성화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대학별 전형자료의 활용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참고로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정원의 30%이내에서 선발)의 경우 2단계로 학생을 선발한다. 1단계 전형에서는 서류심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기록 등)와 교과영역 성취도(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등)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로 1차 선발한다. 그리고 1차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는 2단계 전형에서 대학별 전형자료인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을 100% 반영하여 2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대학별 전형자료의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도 모집 단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발시 15~25%를 반영하도록 하였다(서울대학교, 2001).

현행 대학별 전형자료의 문제점은, 대학별로 전형자료들을 공정하면서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혹은 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학별 논술고사나 혹은 면접 및 구술고사를 채점할 때, 채점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훈련이 충분하지 않아서 채점자들 간의 일치도에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채점자 본인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 즉, A, B, C 3명이 채점을 한다고 할 때 A, B, C간의 일치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채점자가 아침에 채점하는 것과 오후에 하는 것 등과 같이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같은 내용을 채점할 때에도 점수가 서로 달라지는 문제

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를 사설학원 등에서 대신 작성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대학별 전형자료를 제대로 제공하거나 그것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여건이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비의 증가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입시에 관한 한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학부모나 학생, 교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지나친 열의가 만연하는 현 상황에서 대학별 전형자료에 대한 강조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이다⁵⁾.

그러나, 대학별 전형자료의 비중을 높이면,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전형 방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학과(혹은 모집단위)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그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대학별 전형자료의 비중을 높이면 대학별 입학전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기여하게 됨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초·중등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는 곧 초·중등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입학 전형자료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해당 대학들은 대학별 전형자료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 되 이와 병행하여 교육부,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가 모두 힘을 합해 사전 준비작업을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대학들은 대학이나 학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전형 방법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가칭 '입학처(Admission Office)'와 같은 연구·시행기관을 상설 운영하여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해 우수 교원의 확보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과정의 개선, 시설 및 설비의 개선, 행·재정적인 측면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해 적절한 전형방법을 개발·활용하는 과정에서 대학 단위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학과 단위의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종합대학은 단과대학들이 병립(竝立)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내에도 다양한 학과들이 병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단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대학 내 학과 단위의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5) 최근,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구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학생들이 한가지만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입학원서를 내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IV. 전형 방법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행 대학입학전형 방법 및 절차의 특징은 신입생을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는 것과, 모집 단위가 광역화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 및 절차가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1. 수시 모집

수시 모집이란 대학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 등을 중심으로 수시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1학기(5. 20 ~ 6. 20) 수시 모집과 2학기(9. 1 ~ 12. 6) 수시 모집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시 모집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는 ①전국적인 수준에서 지원자들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전형자료(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가 없다, ②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초반부터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입학전형을 위한 업무에 매달리도록 한다, ③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을 위한 후속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④대학의 입학전형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또 많아지고 있다 등이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수시 모집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시 모집의 확대 자체는 지원자들의 실제적인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수시 모집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각 대학별로 가칭 입학처(Admission Office)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대학은 입학처를 상설화 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좀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조직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독자적이고 타당한 선발기준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적인 규모의 가칭 대학입학지원센터(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 Service)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전국적인 규모의 대학입학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개별 대학에서 수행해야 하는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되는 사무적·행정적 업무를 부분적으로 대행해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학입학전형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배포, 입학지원서를 배포하거나 접수하는 업무, 공통되는 전형자료에 대한 평가, 각 대학별 전형자료에 대한 평가 혹은 기술적인 자료, 최종 합격자에 대한 통보 등을 대행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원센터

에서 전형자료들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한 지원자가 여러 대학에 복수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대학들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전형자료(예: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를 중복하여 요구하지 않는다면 단위 고등학교의 사무적·행정적 업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시 입학 합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학에서 예비교양과정을 개설하여 수강하게 한 다음 적정 수준이상의 성취도를 보일 경우 학사학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넷째, 수시 모집을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일제 학생뿐만 아니라 수습학생, 청강생, 시간제(part-time) 학생, 조건부 입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신입생을 수시로 선발함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주부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모집 단위 광역화

최근, 학과별 혹은 전공별 모집에서 단과대학별 혹은 계열별 모집으로 모집 단위가 광역화되고 있다. 모집 단위의 광역화는 현재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소질이나 특성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따라 대학의 전공분야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1~2학년에 걸쳐 추가적으로 폭넓은 기초교육을 시행한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집 단위 광역화의 문제점은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획일화·표준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공통영역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첩경이며 자신의 소질이나 특성은 대학에 가서 제대로 개발하면 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집 단위 광역화는 대학입학전형 자체도 획일화·표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개별 학생들의 소질이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영문학과로 학생을 선발할 때는 지원자의 영어에 대한 소질과 특성 여부를 입학사정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인문학부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 특성을 입학사정에 반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영문학과에 진입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또 어느 학과로 진입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인문학에 필요한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능력만을 입학사정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방해하고 있으며 학부 전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 단위 광역화 정책은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나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3학년에 도입하고 있는 ‘교과목 선택교육과정’과도 그 취지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과의 연계를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모집 단위 광역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모집 단위를 학과나 전공별 모집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학과나 전공별로 신입생을 선발한 후 학생들의 진로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편입학 등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학과나 전공별 정원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V. 맺는 말

이 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대학입학 전형자료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①대학수학능력시험, ②내신성적, ③대학별 전형자료와 함께 ④수시 모집과 ⑤모집 단위 광역화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앞서 대학 자체가 다양화·전문화·특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자체가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는 거의 의미가 없다. 예컨대, 특정 분야의 특기자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자체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우수 교수 확보 노력은 물론, 교육과정의 개선, 시설이나 설비의 개선, 제도적인 측면이나 행·재정적인 측면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입학전형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학력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비록 학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할지라도 학력 자체는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같이 연구위주의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학생 선발시 가장 중시해야 할 전형자료가 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소위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교의 경우에 비록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더라도, 모집 인원의 50%정도는 학력만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50%정도를 다양한 전형자료들을 활용하여 선발한다면 입

학전형에 위한 업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대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교원이나 대학교 교원들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대학 입학전형이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면 될수록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양적(量的) 자료들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질적(質的)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질적인 자료들을 제대로 준비하거나 또는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원이나 대학교 교원들이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입학 후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입학전형이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고 질적인 자료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경우, 선발에 다소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학 후에도 지속적인 질관리(quality control)가 필요하다. 적어도 이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는 어려워도 졸업하기는 쉽다’는 통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입학전형을 점진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행의 대학입학전형은 수 년 전에 비해 훨씬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어가고 있으며,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도 많이 확보된 상태이다. 이러한 성과의 파급효과는 미약하나마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학생들이나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상위권 대학 입학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다만, 현행 대학입학전형은 우리 나라의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은 더욱 살리면서 부정적인 측면은 점차 줄여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입학전형은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하되 점진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9).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교육부 훈령 제587호). 교육부
- 교육부(1998).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문화 창조. 교육부
- 김성인(2001). 대입전형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개발*, 1·2월호, 52-55.
- 김우철(2001).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사제도 개선. *국립대학 발전계획(안) 대토론회*, 3-31. 2001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심포지엄 자료집.
- 나병현(1997). 내신제 입시: 쟁점과 과제. *현안 분석*, 151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 대학교육협의회(2001). *대학 입학 정보*. 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
- 박경숙 외(199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백순근(2001a). 교육측정 및 평가론. 대한민국학술원 편, *한국의 학술연구: 동양철학·교육학*, 245-257.
- 백순근(2001b).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장기 발전 방안. *교육개발*, 1·2월호, 20-25.
- 백순근(2001c). 대학입학 전형자료에 대한 논쟁. 한국교육개발원 편, *2000 한국교육평론*, 121-133. 한국교육개발원
- 백순근(2000). 특기·적성 교육 및 특기자 특별전형을 위한 평가 방안: 특기자의 유형과 수준 및 선발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1), 301-316.
- 백순근(1999). 고등학교간 학력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방안. 한국교육평가학회 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육평가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91-110.
- 백순근 외(1999). *대입전형의 다양화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 서울대학교(2001).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안내*. 서울대학교
- 유영제(2000). 수능제도 다양화해야. *조선일보*, 2000년 12월 20일자 칼럼
- 이종승(200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대안. 황정규 편, *한국 교육평가의 쟁점과 대안*, 445-458.
- 이주호(2000). 학교교육의 경제분석과 정책개혁. *교육개혁연구회 월례 세미나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1995). *고등학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교육정책세미나 자료집

<Abstract>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College and
University Admission System

Sun-Geun Baek*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college and university admission system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admission system are critically examined. Based on those identified problems, the ways of improving the current admission system are proposed in order to intensify diversification, special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in the secondary education as well as higher education.

The propose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 1)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should be implemented several times in a year and the various kinds of CSAT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applicants' ability levels.
- 2) The big differences in the high school students' achievement levels should be considered officially in the screening processes of applicants.
- 3) An office, so called 'Admission Office',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each college or university in order to develop its own screening systems with pursuing diversification, special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 4) A national office, so called '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 Service',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assist each college or university admission affair such as disseminating various information or receiving various materials for admission.
- 5) The number of admitted students should be assigned by each department instead of each college or institute in order to intensify diversification, special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in education.

Sinc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llege and university admission system is a quite critical matter for developing education, both the materials and the processes for admission should be continually improved.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